

< 제 18 장 >

요 18:1-2 13장의 마지막 만찬에서 이어지는 겟세마네 동산 상황을 기록.

요 18:3-14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 무리에게 잡히심.

요 18:15-27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함.

요 18:28-19:16 빌라도의 재판과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줌.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하였는가?> (참조. 요13장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는 어느 제자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또한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제자이며, 매우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의 고백과 행동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나타난다.

<나는 죄인입니다> /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 <주님! 나를 물 위로 걸게 하소서> /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 <다 떠나도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고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 <예수님 보호하기 위해 말고의 귀를 베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주변에 남아 있었다.

이러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는가?

1.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지만, 메시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없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고 직접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차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삼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다.

고백은 있었으나, 그 고백이 삶 속에서 변함없이 유지되는 확고한 믿음으로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

2.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또 다른 이유는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잡혀 고초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다.

“이성적인 인간의 믿음”은 “영적인 믿음”을 제한하거나 거부하게 만든다.

우리는 생각과 판단, 감정으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영적인 믿음에 이르려고 한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다.(히11:1) 이성적인 믿음으로 바라보면 확신이 없어서 결국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한계>이다. 이 믿음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는 것이 “영권”이다.

<마26: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졸음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였다. (17장 겟세마네 기도. 참조)

눈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하는데 의지가 약하여 악한 영에게 영적으로 눌리게 되면 기도할 수 없게 된다.

이 의지력은 인간의 혼적인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의지력 역시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의지력이 약하면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며 부정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던 눈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제자들의 영권이 약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에 성령의 역사가 약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순교까지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인 ‘영권’이다.

이 ‘영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영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나의 몫이며 나의 의지에 달려 있다.(참조. 요5장 타랏소)

<영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악한 세력과 세상의 문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엡 1:19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힘’(ἰσχύς / 이스퀴스) : 하나님 고유의 힘 (Power)

‘위력’(κράτος / 크라토스) : 선천적인 능력 (Ability)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힘과 위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δύναμις, 뉘나미스)이 부어질 때 필요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 능력을 실제로 행하는 힘이 바로 ‘영권’이다.

이 영권은 성령께서 함께하실 때,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타랏소의 능력’이다.

사탄 역시 자신의 위력으로 사람들에게 능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